

교회소식

◆ 광고

-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연습 2시, 소망관)
- 소그룹 모임 방학이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소그룹 모임은 13일 주일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교인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 ①일시 : 2014년 8월 4일(월)~6일(수) 2박 3일
 - ②장소 : 안면도청소년수련원
 - ③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거함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④수련회비는 김금분 전도사에게 내어주시면 됩니다.
- 신일 한마음 기관별 성가합창대회
 - ①일시 : 7월 20일 오후예배시간
 - ② 각 기관(전도회, 교육기관)들은 열심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참가비는 정기훈 강도사에게 내어주시면 됩니다.
- 제3남, 4여전도회 헌신예배는 넷째주일(27일)오후예배에 드립니다.
- 교육기관 여름성경학교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유치부 : 7월 26일(토), 주제 : 교회가 좋아요. 장소 : 신일교회
 - 유초등부 : 7월 25~26일(금, 토), 주제 : QT왕자, QT공주 장소 : 신일교회
- 전교인수련회 여행자 보험 가입 안내
수련회에 참가하시는 성도님들은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준비된 용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사무실이나 최영준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최영준목사)

※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김종남, 김건국, 함돈수, 오세국

※ 교회 기도제목

- 한마음 수련회 진행위원, 강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한마음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위에 풍성하게 하소서.
- 모든 기관들위에 준비하는 모든 일정이운데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주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 4남전도회	남 1, 2목장	실버, 제9여전도회	금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전 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7월 행사

- 6일 : 맥추감사주일, 신일비전헌신예배
- 13일 : 각 기관 월례회
- 20일 : 제3남 4여전도회 헌신예배,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 27일 : 정기당회

◆ 7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7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억, 이진석, 광복님, 이정자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 소	전 화	소속기관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 11시 설교 최 영 준 목사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44장(구56장)
새278장(구336장)
주 품에 품으소서

기 도 1부/김명권 장로
2부/원용국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마가복음 4:35~41 (신 P60)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인생항로에 풍량이 불어와도

기 도 설교자

찬 송 새432장(구 462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강일창 장로
2부 / 양문주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사무엘 목사
설교 최 영 준 목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신동명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요한복음 19:17~22(신 P181)

찬 양 호산나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예수님의 십자가

찬 양 새303장(구403장) ... 다같이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 다음주 기도 / 김건국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30 인도 최 영 준 목사
설교 최 영 준 목사

목 도 다같이

찬 송 새289장(구208장) ... 다같이

기 도 박선옥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사무엘하 8:1~14(구 P474)

말씀선포 설교자

승리의 삶

목장찬양 남1, 2 목장

축 도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 3, 4 목장

✚ 다음주 기도 / 정옥자 집사

Since. 1978

No 28. 2014. 7. 13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교회를 섬기는 분 ◆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옥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등부오후예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제, 프랑스/박신호,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턴벳방송, 필리핀 추수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눌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령교회/김해
-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성은 김예정
-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병드롭민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강혜성(김성원), 김경래(전선녀), 김금분, 김대윤, 김영화, 김영필(심남희), 김재곤(한영실), 김중남, 남희종(김영자), 박근웅(최윤자), 박새롬, 박영혜, 박유연, 박은정, 박진우(김혜정), 박재리, 배사범(장선미), 서기원(김다영), 소재역(김미화), 손승희, 양요한, 윤선옥(염순자), 이선환, 이성은(정), 이성중(신선화), 이목영(김영자), 이해숙, 전양순, 정인선, 정인택(이정숙), 정재만, 최계분, 무영 2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김금분, 김명권(정영주), 김영화, 김영민(함현숙), 김영순, 김재곤(한영실), 김중남, 김진은(김남주), 남희종(김영자),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영혜, 박은정, 박해진, 성형건(윤송희), 손승희,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오정석(정주호), 우성한(정해민), 윤성옥(김신혜), 이상균(김상희), 이성중(신선화), 전금남, 정옥근(이경미), 최계분, 함태수(곽정자), 무영

✦ 선교헌금

강혜성(김성원), 김재곤(한영실), 김중남, 남희종(김영자), 박영혜, 박은정, 서기원(김진숙), 소용섭(김다영), 소재역(김미화), 손승희, 우성한(정해민), 윤호식(주정주), 이성중(신선화), 이영일(홍은미), 이목영(김영자), 정옥근(이경미)

✦ 일천번제헌금

강혜성(김성원), 김건국(성욱/도희), 남동균(윤현덕), 남용민, 박남수(서현우/김영선/변초롱/서정민/송인재/송정우), 안스디(자인, 안영원(영인/해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승민(염서준), 이영일(홍은미), 이재현(김희), 장은숙(수연/전현진/전성), 정옥근(이경미)

✦ 비전헌금

강현선(임희자), 강혜성(김성원), 김금분, 김명권(정영주), 김영필(심남희), 김재곤(한영실), 김중남, 김진순(윤리미), 남동균(윤현덕), 남희종(김영자), 박근웅(곽복남), 박근웅(최윤자),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영혜, 박유연, 박은정, 서기원(김진숙), 소용섭(김다영), 소재역(김미화), 손승희,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우성한(정해민), 우호선(김순자), 이동근(박영숙), 이성은(박선옥), 이성중(신선화), 이수영(권월성), 이승호(성철웅), 이영일(홍은미), 이목영(김영자), 이진석(윤해진), 임용현(정분희), 정재화(김덕연), 정길원(정재순), 정옥근(이경미), 정인택(이정숙), 정태수(김정희), 조성철(이해린),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 맥추감사헌금

안주모와 134명

✦ 장학헌금

김중남, 소재역(김미화), 정옥근(이경미)

✦ 목척헌금

김중남

목장현황

2014. 6. 29~7. 6															
초원		목 장	모인국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국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중남	교 회	5	20,000	10	교 회	03초원	5	김채욱	정분희	2	5,000	33	교 회
	2	강일창	교 회	3	11,000	200	교 회		6	고숙자	정분희	3	10,000	75	교 회
남2초원	3	박근웅	교 회				교 회	04초원	7	곽복남	교 회	2	10,000	14	교 회
	4	김명권	교 회	1	5,000	10	교 회		8	성영옥	교 회	3	11,000	65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교 회	1	5,000	52	교 회	05초원	9	구남량	교 회	3	6,000	20	교 회
	6	안재경	교 회	1	5,000	40	교 회		10	정해민	교 회	5	14,000	30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2	5,000	5	교 회	06초원	11	함현숙	교 회				교 회
	8	박순국	교 회	5	5,000	3	교 회		12	김복금	교 회	3	10,000	100	교 회
남5초원	9	조성철	교 회	1	5,000	6	교 회	07초원	13	정옥자	교 회	3	10,000	24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2	4,000	4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3	15,000	20	교 회
여2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3	15,000	60	교 회	08초원	15	신윤경	교 회	4	17,000		교 회
	2	김명숙	교 회	4	16,000	47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1	10,000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4	13,000	120	교 회	09초원	17	한은정	교 회	3	5,000	35	교 회
	4	정채순	교 회	3	10,000	87	교 회		18	서남지	교 회	3	7,000	30	교 회

금주의 말씀

인생 항로에 풍랑이 불어와도!

마가복음 4:35~41절

이 세상은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입니다. 풍랑이 없는 안전지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항상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1.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항해를 해야 합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저희가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항을 하였습니다. 36절에 “날이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가리는 곳으로 항해하는 것이요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떠나지 말고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분을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인생을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오늘 이 풍랑 이는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바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만나느냐? 아니면 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가?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가? 입니다.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 배는 위험합니다. 순풍을만 날 때는 괜찮지만, 때로 역풍을 만나거나, 광풍을 만나거나, 폭풍을 만나거나 하면 여지없이 조난당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배가 깨어지거나, 거친 파도 에 배가 뒤집혀 가리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만 있다면 때로 사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조금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의 탄배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탄 배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를 만나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사공이 되시고, 선장이 되시니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께 기도하며 항해해야 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으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 풍랑이 일어나, 바닷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어 곧 가리움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거친 파도와 전혀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아속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인물이 보십니까? 예수님은 자들의 외침에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명령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시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만날 때 속히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 미안해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오만을 떨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욱 큰 아찔할만 당했을 것입니다. 그 풍랑 이는 바다에다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빨리 깨을 수록 좋은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때일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신앙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제자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3.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해해야 합니다.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 가지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였는데 같은 사건인 마태복음 8:26절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적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배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는 풍랑은 잔잔해지고 또 풍랑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풍랑을 만나니 순간,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거친 비바람, 풍랑, 파도, 배안에 가득차 밀려들어오는 바닷물만 바라보았습니다. 7나 두려워 없네 두려워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훈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예수님이 계시니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4.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항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파도와 바람이 아주 잔잔해 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가 하였더라. “ 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를 항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기 꾸짖는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물리치실 때, 꾸짖을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이는 누구신가?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기서 누구신가? 하는 것은 의문형일지 보이는데 사실은 감탄형입니다. 감탄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저 분은 애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기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기 무슨 소원을 드러야 하나?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그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에서 누구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지식과 체험이 깊어지고 놀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친 바다도 주님이 명하실 때 큰 광풍도 물결도 바람도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그 순간 그들은 평안해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업드려 경배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는 말은 사실 주님을 경외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감탄의 찬양입니다. 감탄의 찬양은 감탄의 마음속에 밀려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폭발 밀려오기 시작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풍랑은 기온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까?